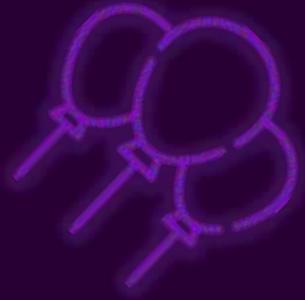


▶ 11월 ◀  
보고서

☆☆☆  
활동은  
어떻게  
이행되는  
가  
평가



# ▶ 물 축제 ◀

본음뚝



11월 첫째주는 매년 200만명 이상 즐기는 캄보디아 본음뚝이라는 축제가 열리는데  
강변에서는 각 지역별 보트경기가 이루어지고  
주변에는 축제를 만끽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우리도 오늘 함 즐겨볼까?

# ▶ 물 축제 ◀

본음뚝



사람들이 거리에 몰려서 정말 많죠?  
그중에 우리 여자 아띠들은 거리에서 포즈를 취하네요

# ▶ 물 축제 ◀

본음뚝



바로 프놈펜에 있는 한 광장인데요.  
각종 맛있는 먹거리가 있고 많은 축제가 열렸답니다.  
(축제를 한번 즐겨보자 Yeah! Peace!!)

# ▶ 물 축제 ◀

본음뚝



그다음엔 Royal Palace에서 먹을만한 음식이  
뭐가 있을까 보다가 "바로"닭발이 보이더라고요 닭발을 아련하게 보는 은선이...  
닭발을 사갔고 Royal Palace 가는길에 YMCA 사진 한컷!

# ▶ 물 축제 ◀

본음뚝



Royal Palace에 와서 맛있는 닭발을 먹고  
멋있는 불꽃놀이도 봤답니다!  
이렇게 우리의 첫번째 캄보디아 축제를  
재밌고 알차게 보냈답니다!!

# ▶ Reflection ◀

본옴뚝

캄보디아의 문화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우리를 위해 시간을 내준 현지 스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끼며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연휴가 꽤 길어서 좋았다

# ▶ End Poverty ◀

YMCA



End Poverty를 Waste라는 주제를 삼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여자 아띠들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고 학생들은 열심히 경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네요. 반면에 남자 아띠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 ▶ End Poverty ◀

YMCA



거리 캠페인을 위한 피켓을 만들고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앞서 분리수거 하는 게임을 진행 했습니다.  
거리 캠페인은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 ▶ End Poverty ◀

YMCA



맨 앞의 피켓 들고 있는 학생들의 선두로 차례로 쓰레기를 줍고 있네요  
캄보디아에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여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 시키고자 한 활동을  
학생들이 잘 해 줘서 END Poverty 활동 성공!!

## ▶ Reflection ◀

End Poverty

초기에 계획이 자주 반복되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었지만 결국엔 잘 끝나서 속 시원하다.

우리의 캠페인 활동을 통해 함께한 아이들도 느끼고 배우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우리의 캠페인이 잘 수행된 것 같아 뿌듯했다.

우리끼리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 보람을 느꼈다.

# ▶ Donation ◀

YMCA



이날은 바로 기부물품을 전달하는 날..ㅎㅎ 우리가 기부해서 나눠주는것이 아니지만 우리 라온아띠들도 참여해서 기부물품을 길거리 학교 2군데에 방문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 ▶ Donation ◀

YMCA



2번째 학교에 방문해서 아띠들은 학생들에게 가방, 연필, 공책을 나눠줬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진호는 열심히 뒤에서 가방, 연필, 공책을 열심히 배부중이었어요. ㅎㅎ)

# ▶ Reflection ◀

Donation

우리가 물건을 직접 기부했던 행사는 아니지만 함께 참여하는 것에 의의를 뒀다.

앞으로 교육할 아이들을 미리 만나면서 앞으로 우리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생겼다.

기부하는 사람들이 모든 아이들과 사진을 굳이 한 장씩 다 찍는 모습이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행동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다. 이런 모습이 아이들이 하나의 도구가 된 것 같았다.

# ▶Environment Campaign◀

YMCA



이날은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를 절약하자라는 캠페인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전에 한국에서 우리 크메르어를 가르쳐주셨던 선생님이 캄보디아에 오셨다고 해서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후에 올림픽 스타디움에 가서 청년들과 자기소개를 하고 본격적인 캠페인을 진행했어요.  
그 이야기 함께 보시죠~!

# ▶Environment Campaign◀

YMCA



청년들과 같이 캠페인을 하고있는 우리 아띠들.  
저녁에는 다 같이 춤추고 있는 우리 아띠  
춤 실력은 각자 다르지만 열심히 따라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의 캠페인은 끝났답니다!!

한국에서 크메르어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캄보디아에서 만나니 감회가 새롭고 더 반가웠다.

캠페인은 급하게 준비된 느낌이었고 그 활동도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하지 못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우리는 이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활동했다기보다 참가자로 활동한 것 같아서 아쉬웠다.

그래도 다같이 티도 맞추고 직접 사진 틀도 만들어서 청년들과 활동한 것 자체에는 의미가 있었다.

# ▶ Farewell Party ◀

YMCA



8주간 우리가 가르쳤던 YMCA학생들과 마지막 파티!  
끝났다는 사실과 함께 후련함이 있지만 아쉬움이 남았네요.  
그 아쉬움을 달래려 같이 신나게 놀았습니다!!  
Let's Party!!

# ▶ Farewell Party ◀

YMCA



YMCA 가족들이 마련해준 깜짝 송별회  
생각지도 못한 깜짝 이벤트  
정말 감동했어요!!

# ▶ Farewell Party ◀

YMCA



우리는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훗날에 멋진 청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과 8주간 우리의 교육과정을 마무리 했다!!(자유다~!)

# ▶ Reflection ◀

Farewell Party

마지막을 과자파티를 하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우리를 위해 깜짝 이벤트도 준비해 주셔서 무지하게 감동 받았다.

두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 하며 아쉬움도 많이 남았다.

마지막까지도 현지와의 소통의 문제로 예산이나 일정이 자주 변경되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이 부분이 상당히 불편했다.

# ▶ Homestay ◀ YMCA



급작스럽게 1주간 홈스테이를 하게 된 우리 아띠들  
2집으로 나누어서 생활하게 된 우리..ㅎ  
첫날에는 호주 YMCA 봉사자들과 함께 파티를 했답니다~  
캄보디아 춤도 배우고 호주 춤도 배웠던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 ▶ Homestay ◀

YMCA



꽤 오랜시간 춤을 추고 나니 기진맥진..  
마지막 춤을 추고 마무리로  
단체 사진 한 컷!!  
마무으리~!  
12월에도 계속 됩니다!

# ▶ Reflection ◀

Homestay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의 문화와 호주의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를 함께 교류할 수 있어서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문화의 밤에 초대를 받아서 가긴 했지만 호주와 캄보디아 청년들의 행사에 끼어든 것 같아서 조금 어색했다.

홈스테이가 통보식으로 갑작스레 진행되어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쾌했다.

# ▶ Street School ◀

YMCA



11월 말 부터 시작된 또 다른 교육과정  
우리 스트리트 학생들과 함께 할 여정  
첫수업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 서로 그림 그리기!  
더 자세한 내용은 12월에 확인하세요!

새로운 아이들과 새로운 선생님과 유대감을 쌓아 가는 게 즐거웠다.

외국인인 선생님을 아이들이 유독 잘 따르고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을 보기 전 아이들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편견을 조금 가졌는데 실제 아이들을

보니 부잣집 아이든 가난한 집 아이든 다 똑같다는 사실을 느끼며 미리 편견을 가진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 ▶ Personal Essay ◀

RaonAtti

# ▶ Reflection ◀

Personal Essay

## 피싸이 Reflection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중간 평가 기간 중 루나와 이야기했던 시간은 개인적으로 내게 참 많은 힘을 주었던 시간이었다.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따지지 않고 나의 감정을 그대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어서 그 자체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었던 시간. 덕분에 나의 부끄럽고 어린 모습을 무시하거나 못 본 척 하지 않고 마주하고 조금 더 성숙해지고자 마음먹을 수 있었다. 그런 힘을 주었다.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을 배려할 수 있는 성숙함. 여기 오기 전부터 가장 고민이었고 가지고 싶던 마음의 여유를 다시 한번 떠올리며 가지고자 노력하고있다.

다만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타인을 배려하려고 한다. 11월까지의 기간은 스스로는 참 힘들었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가치있게 만들어서 나의 라온아 띠가 조금 더 의미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려고 한다. 파이팅.

# ▶ Reflection ◀

Personal Essay

## 레이 Reeflection

그동안 우리의 활동 대부분을 차지했던 YMCA Learning Center에서의 교육 활동이 11월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되었다. YLC 활동을 마무리하며 되돌아보니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랑받고 있었고, 무언가 주고 싶었는데 가득 받게 된 내 모습을 보게 되었다.

11월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보이는 나의 찌질한 모습에 라온아띠로서의 나의 자격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찌질한 내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다. (여전히 어렵다) 그렇지만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찌질한 내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용기 있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 나아지게 노력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라고 ! 좋든 싫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다. 나답게, 가장 솔직한 내 모습으로 살고 싶어하면서 나는 나에게 가장 솔직하지 못했다.

라온아띠로 프놈펜에서 살아갈 남은 두 달,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 마음의 여유 !

# ▶ Reflection ◀

Personal Essay

## 꼬마 Reflection

나에게 11월달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솔직하게 표현했던 달이었다.

그전에는 내가 여기서 하는 활동에 대해 답을 얻으려고 했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었고 그 답은 찾지 못했지만

루나 간사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내가 미처 생각도 못한 생각도 알수있었고 ㅎㅎ

답을 다 찾지는 못했지만 속의 답답함이 풀어졌다.

앞으로의 2개월은 잘 살아서 잘 귀국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다.

지갑 잃어버려서 짜증난다 ㅋㅋ

# ▶ Reflection ◀

Personal Essay

## 니꼬 Reflection

11월 한국어 수업시간에 "여러분이 원하는 캄보디아의 미래를 그려보세요" 라는 주제를 주었고 그림으로 상상을 펼치게 하고 싶었다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 또한 그림을 그렸다 고층빌딩을 세우고 traffic jam으로 무질서한 교통에 도로를 확장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 쓰레기통 주변에 꽃길이 깔린 모습, 큰 병원과 학교를 그렸다. 아이들과 발표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은 나의 그림을 보고 저기는 캄보디아가 아니야 저기는 한국이야 라는 말을 하였다. 나는 발전된 캄보디아를 그리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정작 바라는 것은 길거리에 쓰레기가 없는 것이었다. 전날 end poverty 활동으로 아이들에게 쓰레기의 문제점과 쓰레기가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분리수거를 직접 체험하는 게임식 activity를 통해 분리수거를 가르쳐 주었던 것이 영향이었을까? 많은 아이들이 여러개의 쓰레기통을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는 모습을 그렸다 캄보디아의 쓰레기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아이들도 쓰레기의 문제를 느끼는 것 같았다

캄보디아 YMCA Learning Center 아이들을 대상으로 2달간의 교육활동이 11월로 끝나게 되었다.

아이들과 마지막 파티에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같이 먹으면서 끝내고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마지막 수업이 되었고 음식이 아닌 과자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서 너무 아쉬웠다. 아이들은 햄버거 피자를 원했고 우리들이 준비하려 했던 음식은 떡볶이와 화채였다 아이들이 과자를 먹게 되어 미안한 감정도 들었다 그렇게 11월을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추억을 만들었다.

▶ 12월 ◀  
보고서 기대해주세요!

★ ★ ★  
11월 활동  
이야기  
End

